

《우리는 당신측 첫째 요구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둘째 요구에 대하여서도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도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1953년 7월 19일 정전담판 58차본회의에서 조선인민군측 대표가 발표한 10개 조항으로 된 성명에 대한 미국측 대표의 대답이다. 당시 정전담판장에서 이 사실을 직접 취재하던 외국의 기자들은 미국의 처참하고 가련한 물결을 《유엔군측의 무조건항복!》이라는 제목으로 온 세상에 보도하였다.

역사는 고칠수도, 숨길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법이다. 우의 사실이 보여주는데처쳐 미국은 지난세기 50년대에 침략하던 불을 질렀다가 결국 제가 지른 불에 제가 타죽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말았다.

청소중 공화국이 110여차례의 해외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미국과 맞서싸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은 말그대로 력사의 기적이었다.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자기 나라 특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군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을 내몰았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 7 300여만의 군사물자와 1 650억US\$의 군사비를 탕진하였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액

어길 수 없는 법칙적인 두 전통

수의 자금과 물자도 패배로 졸달 읍치는 미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지 못하였다.

공화국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 부정할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이력사의 법칙은 전쟁이 끝난후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첨예한 조미대결의 력사에 기록된 몇가지 사실을 돌이켜보자.

1968년 1월 공화국의 령해에 불법침입하였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었을 때였다. 사건발생후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그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보복조치》로 공화국의 항구를 《포격》하고 《봉쇄》하겠단느니, 원신을 공격하고 그 배를 빼앗아가겠다고 하니 하면서 함포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요크타운》호, 《레인저》호를 비롯한 20여척의 대기통합선집단을 조선동해에로 내몰았으며 일본에 있던 2개의 비행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었다. 그리고 본국에서 1만 4 600명의 예비역공군과 해군함대, 지원부대의 소집을 명령하고 해군에비대의 퇴역을 중지시켰으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 일본 《자

위대》에는 《비상동원령》을 내려게 하였다.

일족축발의 초진장상대가 조성되어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그 시각 공화국에서는 미제국주자의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겠다는 폭탄같은 선언이 발표되고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만단의 정치군사적준비를 갖추었다. 조선인민의 이 기세앞에 겁을 먹은 미국은 결국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미국정부명의로 된 문건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음해 4월에 있는 《EC-121》대형간첩비행기격추사건때에도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남조선군 전체 부대들에 《비상경계령》을 내린다. 미제7함대소속 함포모함들과 함선들로 《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조선동해에 들이민다 어쨌다 하면서 분주량을 퍼붓지만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단결된 힘앞에 겁을 먹고 슬그머니 쫓무나를 빼고말았다.

1976년 8월 미국이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강행한 판문점사건의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게 획책인 군사적도발이었다. 미국

은 인민군측이 먼저 도발하였다고 결코들면서 《비상대기령》을 내려 남조선에 있는 전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군과 함께 완전무장을 갖추고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오키나와에서 미제3해병사단의 침략군 1 800명을 남조선에 끌어들었다. 또한 미국본토와 오키나와로부터 남조선에 《F-111》최신형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편대들을 새로 끌어들였으며 요크스카항을 떠난 미제침략군 7함대의 《기동타격함대》가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개앞에서 미국은 북조선은 군사적방면으로는 굴복시킬수 없는 나라라고 비명을 지르며 마침내 전쟁작전을 포기하고말았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격화되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핵위협》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새로운 반공화국소동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던것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사실상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으로써 발생한 문제였다.

미제는 정전후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배비를 정책화하고 1958년부터 1990년초까지 무려 1 720여개나 되는 각종 전술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는 1990년에 나토지역의 4배, 그 폭발력에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1 000배이상에 달하였으며 남조선은 100km당 1개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된 세계 제1위의 핵기지로 전변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미제날뛰는 미국의 발악적 행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련이어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단호한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를 진감시킨 이 《폭탄선언》에 강타를 받은 미국은 《틴스퍼트리 93》합동군사연습을 기일을 앞당겨 중지한다는것을 공포하였으며 미국의 사측을 받는 국제원자력기구는 강도적인 《특별사찰》소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은 조미회담에서 공화국을 압박하고 회담장박에서는 북침전면전쟁을 가상한 컴퓨터모의시험도 벌리는 등 별의별 책동

을 다하였지만 외교에서도, 군사적대결에서도 참패를 당하여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고 미국대통령의 명의로 된 담보서한까지 공화국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미핵대결전의 빛나는 승리, 이는 련전련승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불변의 지위와 미국의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를 온 세계앞에 보여준 미증유의 사면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아이미군부가 정권을 내놓게 만들었고 이라크에는 군사적압력을 가하여 싸담 후세인이 쿠웨이트국경에서 무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지만 북조선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자 클린톤은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라고 썼다. 영국신문 《에이슈 타임스》지도 《근 반세기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 질식, 파괴해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던 미국은 마침내 자기의 목적이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라고 평하였다.

그후 미국에서 공화당정부가 출현한 후 2002년부터 새로운 조미

핵대결전이 시작되었다. 미국대통령 부위가 앞장서서 《년두교서》에서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저들의 중요제품의무마지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발악도 제자의 운명을 바꾸어놓을수 없었다.

오늘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세계만방에 그 이름을 빛내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며칠전 전승절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61년전 승리의 7.27을 미제의 최후멸망을 선고할 새 세기 승리의 7.27로 만들려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력사적으로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결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었다.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고 조미대결전의 최후승리는 조선의것이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한민구는 함부로 입부리를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

싸움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한민구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대강감투를 쓰더니 놀아대는 꼴이 역겹기 그지없다.

허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더니 여기저기 돌아치며 대결광기를 부리다 못해 나중에는 가소롭게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 《체제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채취대니 이 얼마나 잠꼬대같은 나발짓인가.

명색이 국방부 장관이라는게 싸움은 입으로 하려는지 귀입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치조 안되는 허바닥을 무던히나 뽀라치게 굴러가며 제잘거리고있다. 선임자였던 김관진이 미친개처럼 왕왕 짖어대며 대결책동에 광분하다가 얻은것이란 여기저기서 만신창이 되도록 못매질만 당한것뿐이다. 그걸 보고도 저 모양새니 한민구 역시 약이 없는 추물이다.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것들은 력대로 약자의 궁색한 처지를 주동이질로 보충하며 허세를 부리는것이 체질화된 유전

인것 같다.

하για 명색만 군대일뿐이지 내속은 토비무리나 다름없으니 왜 그렇게 앉았는가. 구라와 폭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만연하고 최전연부대들에서까지 총기탄사건과 자살사고가 한무하는데다가 상충부라는것들은 돈벌이에 눈이 벌개 돌아치다 못해 군내 《비밀》까지 팔아먹고있는판이다. 이런 오합지졸의 무리로는 군사강국으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당하지 못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로서 한민구도 잘 아는 속사정이다.

게는 낡는족족 짓는다고 국방부장관탈바가지지를 썼으니 힘은 약한데 체면은 세워야지 그래서 예비 믿고 손소리치는 철부지처럼 미국상선을 하내비로 믿고 소리쳐본다는게 이런 개덕두리질이다.

그러 한민구에게 현현대장부담게 한마디 한다. 싸움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오길 남

연평도의 악몽을 잊지 말라

어제그제 괴뢰국방부 장관병거지를 쓴 한민구가 하물무서운줄 모르

고 마구 헤엄치는 꼴을 보느라니 쓴웃음을 금할수 없다.

평화통일념원에 맞는 조치를 취할것을 주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가 7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념원에 맞게 처신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북이 남조선의 인 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기로 한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정부》가 북의 제안과 의사를 대결과 불신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견지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는 북남사이의 화합과 연대를 보여줄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남조선《정부》가 온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에 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여 7월 23일 외교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남조선이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을 위한 외교회담을 벌려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 일본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집단지자위권》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일본정권의 고노담화부정은 곧 성노예범죄와 침략의 력사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난하였다.

《집단지자위권》역시 유엔헌장에 배치된다고 주장하

였다.

일본의 고노담화부정에 당국이 옳바로 대처하지 못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당국이 군사협정을 랑해각 서형식으로 체결하여 일본의 《집단지자위권》행사를 위

반침해주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민족의 안전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일방적으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쌀 시장 개방 책동을 단죄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련맹소속 총정남북도지역 농민들이 7월 25일 제81주년에는 《정부》청사앞에서 당국의 쌀시장개방책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쌀시장개방을 결정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쌀시장개방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

구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농민축산식품부에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청사제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으며 탄압을 가하던 끝에 7명을 런행해가는 폭거를 감행했다.

본사기자

대답

평화지향에 역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내외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는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 전문가 랑세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 자: 최근 남조선의 군부세력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평화제안과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함께 고노도역미사일 《THAAD》(싸드)를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하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랑 세 철: 대단히 엄중하다고 본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며 벌리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타격목표로 하여 강행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절경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해마다 방대한 침략무력과 함대 기간들을 그리고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이 그렇지 않oad 친예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는것은 삼척증자도 아닌 사실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민들이 침략전쟁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남조선의 군부세력이 미국과 함께 8월 중순부터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는것과 함께 남조선주둔 미군에

짜드배치를 현실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기 자: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미국과 함께 강행하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짜드배치가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랑 세 철: 대단히 엄중하다고 본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제마음대로 단체를 설정하고 공화국에 선제타격을 할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이라크전쟁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미명하에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전쟁후 미국이 이라크를 이집트 살상이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는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떠

한갖 침략의 구실로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군부세력과 미국은 이러한 수법을 《맞춤형억제전략》에 써먹고있다. 마치도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과 《도발》을 역제한다는 미명하에 북침선제공격의 구실을 얻자는것이 호전세력들이 노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이번에 강행하려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긴장완화와 평화보도에 실체해놓고 매 단계별에 맞추어 그시그시 적중하게 대응한다는것인데 1단계 《위협》)에서는 국제사회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공화국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2단계 《사용억박》)에서는 그 무슨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타격》하며 3단계 《사용》)에서는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들을 저들의 그 무슨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다는것이다.

문제는 호전세력들이 제마음대로 단체를 설정하고 공화국에 선제타격을 할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이라크전쟁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제거》의 미명하에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전쟁후 미국이 이라크를 이집트 살상이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는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떠

한갖 침략의 구실로 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군부세력과 미국은 이러한 수법을 《맞춤형억제전략》에 써먹고있다. 마치도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과 《도발》을 역제한다는 미명하에 북침선제공격의 구실을 얻자는것이 호전세력들이 노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이번에 강행하려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긴장완화와 평화보도에 실체해놓고 매 단계별에 맞추어 그시그시 적중하게 대응한다는것인데 1단계 《위협》)에서는 국제사회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공화국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고 2단계 《사용억박》)에서는 그 무슨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타격》하며 3단계 《사용》)에서는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들을 저들의 그 무슨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다는것이다.

《보안관찰법》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할것이다

남 조 선 단 체 들 주 장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여천히 폭압의 울가미를 조이고 있다.

이에 항의하여 목사가 공안당국에 자기의 움직임에 대해 알리는데를 거부하자 경찰은 여러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위협을 가하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한상렬목사가 출소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안관찰법》에 렬시되어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고있는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보안법》과 같이 일체

의 악법에 뿌리를 두고있는 《보안관찰법》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진보적인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에까지 개입하게 하는 이 악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수밖에 없다고 비난하였다.

사상통합을 감시하는 악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보안관찰법》을 즉시 폐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